발행처 : 복음과기도미디어(www.gnmedia.org) 구독·문의 ☎ 070-7417-0408~10, Fax 041-663-4011

제149호 2016. 12. 4 ~ 2016. 12. 17 (창간일 2010. 10. 3)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탈리아 의료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거부

의사 70~90% 낙태 시술 안해

낙태 허용국인 이탈리아에서 상당수 의사들의 종교적 이유 등으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23일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가 보도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신앙의 색채가 강한 8개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 비율이 80~90%에 이른다.

이탈리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병원의 60%가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된 아일랜드나 폴란드와 같은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상 이탈리아는 낙태 금지국이나 다름없다.

또한 양심적으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사람은 비단 산부인과 의사에 국한되지 않고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를 내세우며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낙태시술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이탈리아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GNPNEWS]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 12:21)

기도 | 주님. 이탈리아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는 증인들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제공: WMM

– 케냐에서 –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결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앞에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지인 목회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무게를 설명하고 있을까? 아니면 인간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선포되고 있을까?

미간을 찌푸린 이의 얼굴과 눈빛에서 무언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전해져 온다. 아이들도 팔짱을 끼고 고민하는 듯, 어느 하나 장난기 없는 진지한 표정이다. 영혼에 울림이라도 온 것일까? 오른쪽 끝에 있는 아주머니는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다.

절망의 끝에 주님은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먹먹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마가복음 1:11)"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4)

지금의 당신의 삶이 평소 꿈꾸던 모습입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당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당신 모습이 평소 꿈꾸어 오던 바로 그 모습입니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며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계시지요? 성인이 된 후부터는 그 누구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당신이 결정하고 실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이 원하던 그 모습이 아닐까요? 주인으로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지도. 그러나 그 답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당신이 진짜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당신도 그 피조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설계자의 의도를 넘어 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컴퓨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장났다'고 합니다. 인간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장 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가장 완벽한 설계의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완벽한 설계대로 살 능력은 여전히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지만 당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에서 스스로 벗어났고 설계자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하여금 당신의 죄를 모두 감당하게 하시므로 다시 새롭게 당신의 원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죄로 인해 고장 난 당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의탁하십시오. [GNPNEWS]

INSIDE

02 **뉴스** | 아시아
미얀마, 5만여 명 참여한 전도집회 열려

03 **기획** |
카자흐스탄의 기독기업,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05 **인터뷰** | 단·달리야 장로 부부
"이스라엘 광야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예수 안에서 내가 꼭 보고 싶은 것

08 **뷰즈인 북스** | 세 왕 이야기
어려움은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할 몫

한국

혼란한 시국에 동성애 옹호단체 법인화 추진 및 차별금지 요구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27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달 4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동성애자 단체의 법인 설립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출처: 국민일보 캡처).

최근 어수선한 시국에 동성애 및 성소수자 관련단체들이 사회적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시위에 가담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서자,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기독단체 및 동성애문제 전문단체들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의 설립거부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對)법무부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과 27개 학부모 단체는 이에 지난 11월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무 법인설립불허처분'을 적극 지지한다며 시민들에게 서울고등법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학연 관계자는 "만약 서울고법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 단체의 법무부 법인설립을 허가한다면, 이는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간 성접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각종 시위현장에 동성애 단체들이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같은 피켓을 들고 대거 참여했다. 이들 동성애 단체들은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의 여섯번째 '인권'에 대한 요구사항에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GNPNEWS]

아시아

미얀마, 5만여 명 참여한 전도집회 열려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 최근 5만여 명이 참여한 대형 전도집회가 진행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닷컴이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한 전도집회가 사랑기쁨평화 축제(Love Joy Peace Festival)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컨벤션센터에서 3일간 진행됐다. 이 대회 첫째날은 4만6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25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대회를 주관한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연합측이 밝혔다. 또 둘째날에는 5만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2400여 명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부흥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천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레이엄 목사와 동역자들은 이번 전도대회 외에도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미얀마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작전'을 통해 수백 개의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GNPNEWS]

▶ Love Joy Peace Festival 집회현장(위)과 복음에 반응하는 현지 젊은이들(출처: billygraham.org)

아시아

中 크리스천 재소자 대상 장기밀매

중국에서 크리스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최근 차이나 에이드 등 크리스천 인권기구는 "중국에서 매해 약 6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장기이식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장기이식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는 '재소자 대상의 강제 적출'이 유일하다."고 장기 적출 실태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 '중국 장기기증과 이식의회' 회장 후앙 지에푸는 중국 당국은 비자발적 장기이식을 엄중히 처벌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중국의 불법 장기밀매 실태는 지난 11월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지아 징롱의 사형 집행 전 변호사나 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가 적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여러 국제인권단체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조사가 요구된다."며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장기매매 실태를 감안하면 '독립적인 조사'가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했다."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12 ~ 11.2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북극 11월 이상고온 '공포'…평년보다 20도 상승

올해 11월 북극 기온이 영하 25도 안팎을 기록하는 평년 수준에서 무려 20도 가량 상승해 영하 5로도 관측됐다고 미국, 유럽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모든 피조세계를 고통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비아 부족 간 충돌로 20명 사망…'애완 원숭이 때문에'

최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남쪽으로 약 660km 떨어진 사브하 지방에서 애완 원숭이 한 마리가 고등학교 여학생을 공격하는 사건을 계기로 아울라드 술레이만과 가다드파 부족간 무력 충돌이 나흘째 지속돼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고 2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저런 변명과 합리화로 자신들의 욕망을 갈취하려는 두 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리스도로 구속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툼과 전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남수단, 아사 직전 400만 명 넘어…기독단체들, 기도 요청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남수단의 인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700%를 기록한 가운데 아사 직전의 인구수가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최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남수단에 대한 기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사 직전의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 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인도 사이비 여교주 결혼식장서 총기 난사 "이유는 없어"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州)에서 스스로 '여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부하 6명과 함께 결혼식 하객들에 총격을 퍼붓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고 최근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신랑의 고모(50)가 사망하고 다른 친척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존재의 비참함을 목도합니다. 전능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신들을 통해 결국 자신을 섬기는 무익함을 벗어나 전능하고 선하신 참 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12월 1주 ~ 12월 2주

12월 1주(12.5~12.10)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경기 광주 / 문광교회
(최**) 010-3380-5781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이**) 010-3737-3629

▶강원 춘천 / 춘천중부교회
(현**) 010-4612-7249

12.5~10(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2.9(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12.8~9(07시~19시)

▶전북 전주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12월 2주(12.12~12.17)

▶경기 광주 / 동산의샘교회
(김시환) 031-765-3927

12.12~16(19시~24시)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12.16(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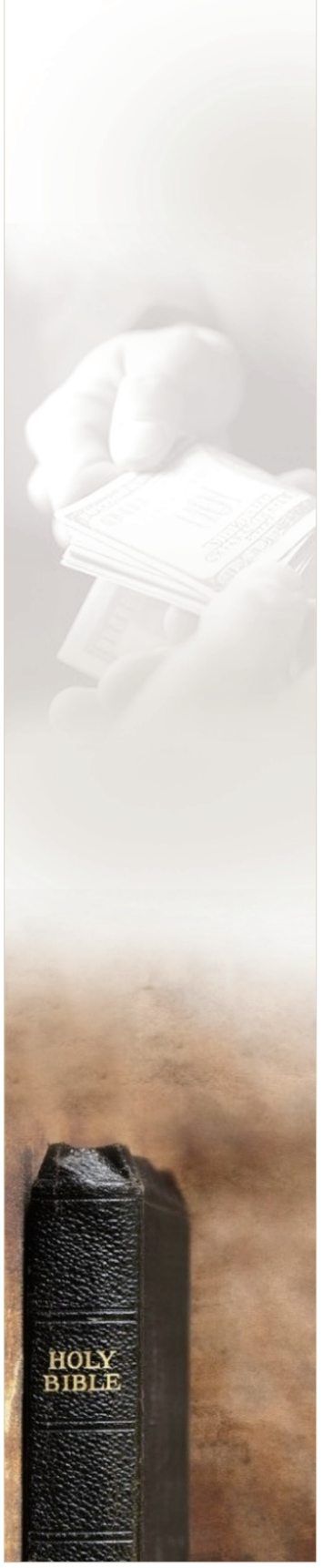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기획

카자흐스탄의 기독 기업,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카자흐스탄 나자바예프 대통령은 최근 자국내 개신교가 급부상함에 따라 기독교적 신앙이 사람들을 정직하고 성실한 직업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기업에 대한 단속과 형평성 잃은 법집행으로 구(舊)소련 시절의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언론 사이트 〈브레이크 포인트〉에 게재된 케빈 와이트(종교자유와 기업재단(RFBF) 연구원)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운데 기독기업에 대한 단속 '엇갈린 행보'

경찰의 기독서적 압류 및 위협

독일 출신의 크리스천 모니카 보부흐너는 2012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왔다. 학대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을 돕는 기업 '세븐 트리'가 그것이다. 세븐 트리는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직업훈련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카자흐스탄 기업의 긍정적인 본보기로 기여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10일, 모자를 눌러쓴 두 명의 낯선 남자들이 회사에 나타났다. 그들은 창고 안에 쌓여있다가 청소하는 동안 잠시 길가에 내놓은 물건 중 기독교 관련 책자들을 보고는 그 책에 대해 심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경찰 배지를 내보이며 창고로 밀고 들어와 나머지 다른 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7명의 경찰들이 나타났다. 모니카는 경찰서로 연행돼 범죄행위를 추궁 받았다. 그 책들은 당국으로부터 출판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모니카와 직원들을 체포하고, 그 책들을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회적 현상이 아니다. 이 나라의 발전 가능성의 역동성을 갉아먹는 안타까운 현실뿐 아니라, 민주적인 비전과 자유시장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구(舊)소련 시절의 정신상태에 갇혀 있음을 대변하는 사건이다.

2017년 엑스포 유치 예정국인 카자흐스탄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는 2050년까지 경제적으로 세계 30위 안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해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 30%를 지원하겠다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몇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의 인권상황을 아주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부패순위는 168개국 중 123위에 머물고 있다. 즉, 규칙과 법 그리고 인권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소기업과 중소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더 많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구의 민주적 원칙은 기독교 정신의 산물

한편 카자흐스탄의 2050년 계획이 발표되던 2012년 누르술탄 나자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젊은이들의 사고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경제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나라는 발전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카자흐스탄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이념과 권리 보호, 일반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이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에서 계승되어 온 민주적인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전제로, 시민들의 권리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은 것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Imago Dei).'는 성경적인 전제는 서구사회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며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게 했다. 이러한 관점이 서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면서 정부는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게 됐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토마스 제퍼슨은 이러한 세계관을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아냈다.

나자바예프 대통령, "개신교 정신 정직한 태도 가져와" 긍정평가

"우리는 이 자명한 진리를 지지한다.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지음받았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번영과 탁월성을 이끌었던 바로 그 가치들을 과소평가하려는 광적인 세속주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근거한 근본적인 이념이 아닌 단순히 물질과 가치의 번영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속에서는 지속적인 사회의 안정성과 경제적 번영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이 사회주의를 벗어나 서구사회의 자유시장경제를 모델로 발전을 꾀하는 국가에서는 서구사회의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정신을 이은 미국인들은 "사람을 선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을 선한 시민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나 문화든지 자체적인 도덕이나 종교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 나라나 사회를 자유와 경제 번영 또는 전체주의 중 하나로 이끌게 된다. 전체주의와 경제적인 발전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자바예프 대통령은 2015년 3월 집권당인 누르 오탄당 전당대회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신앙이 오늘의 카자흐스탄 사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의 개신교 성장을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에 개신교가 부상하고 있다. 개신교 정신은 생산력을 놀랍게 향상시키고 절약과 덕행의 가치를 중요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한 수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종교를 믿는 6개 강대국은 지구상에서 부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자바예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강대국의 경제가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정확하게 인식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법제도와 인권 개념에 도덕적 권위를 제공했으며, 이는 인류의 번영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자흐스탄은 국가의 발전에 있어 이러한 신학적이고 이상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잠재성을 가진 나라다. 그러므로 지금 카자흐스탄은 역사의 본보기로부터 배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클라스 카브듀카소프 목사는 카자흐스탄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유를 실상은 억압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십자가 복음만이 삶의 변화 가져와

결국 카자흐스탄에 대한 해답은 혁명적인 전쟁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흥이다. 개인과 나라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될 것이다.

이제 서구 국가들도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배교하고 성경적 신앙을 포기한다면 결국 이상적인 틀 안에서 그들의 사회의 기초와 보호를 가져온 규칙과 법, 그리고 인권의 전제들을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선교 통신

예멘에서 기다리는 '그날의 영광'

혹독한 내전은 2년 동안 예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여전히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지만 새로운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한때는 무슬림이었지만 현재는 신앙을 가지게 된 자밀(가명)은 젊은 시절 주님을 영접했다. 그는 신앙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예멘에서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멘의 크리스천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는 크리스천들에게 직접 더욱 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테러리스트 단체 중 하나가 주요 공격 대상 크리스

천들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문서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게 인적사항이 공개된 크리스천들은 숨어지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고통 때문에 더욱 주님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밀은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다.

"예멘의 교회는 아직 젊습니다. 신앙 1세대들이 그동안 이슬람과 싸워왔지만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2세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의 희망과 기도제목은 제3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예멘은 엄격한 무슬림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공식적인 단 하나의 교회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것마저도 내전 상황에서 파괴되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전국 통틀어 예멘의 크리스천 숫자는 극소수이며 모두 무슬림 배경의 신자다.

예멘은 석유가 풍부한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최빈국이다. 2011년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은 예멘은 정치적 개혁을 위해 대규모 거리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슬람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악이용되었으며 결과는 참혹한 혼돈이었다. 시아 하우티(Shia Houthi) 무슬림 그룹은 수도인 사나(Sanaa)를 점령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일촉즉발 시켰다. 이는 하우티족이 이란과 결탁하여 사우디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년이라는 긴 전쟁의 시간들은 예멘의 자원을 고갈시켰다.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시민들이 긴급구조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국제연합(UN)은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상황'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자말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다.

"이러한 전쟁은 크리스천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게 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십자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것입니다. 고통이 오히려 예멘의 크리스천들이 주님 오시기를 더욱 갈망하고 주님을 찾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신다면 당장 이 모든 고통은 끝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된 몽족 복음화…1만여 성도로 성장

FEBC 방송 통해 말씀과 찬양 듣고 신앙생활

한 지역이나 종족의 복음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본지 통신원이 알려온 베트남 북부 몽족 마을의 복음화 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라오스 몽족 출신의 반쯔엉. 1975년 무렵 전쟁이 끝나면서 많은 몽족 사람들이 미국행을 선택할 때 그 역시 미국으로 탈출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체류 생활 중 그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 그 이후 그는 필리핀 FEBC방송에서 몽족을 대상으로 방송선교를 담당했다. 이미 반쯔엉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순종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씨앗이 되어 한 종족을 구원케 하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

반쯔엉 한 사람의 순종으로 전파를 탄 몽족 대상의 복음방송은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역 몽족 마을의 한 사람 콰에게 들렸다. 그의 아버지는 1900년대 초 세 가구와 함께 지금의 그곳으로 이주해 콰를 낳았다.

1994년 어느 날 콰의 매형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간단하게 나눠줬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 그의 매형은 그때까지 신앙은 없었다. 그러나 콰는 매형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게 된 것만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콰가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필리핀 FEBC에서 들려오는 몽족 대상 방송이었다. 방송에서는 몽족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고, 몽족 언어로 된 찬양 두어 곡을 들려줬다.

콰의 전도는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 94년 10월에 처음 신자가 생기고 불과 2개월 뒤인 12월에 마을 전체 70호가 그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한 것이 그가 전한 내용의 전부였다.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즉각, 반응했다. 자신의 죄 된 삶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 몽족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현지인의 모습과 몽족 교회 총회 모습

본지자료사진

이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몇 사람이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면 짧을 때는 10분, 길어질 때는 30분 만에 예배가 끝나기도 했다.

항상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먹을 것에 대해 염려는 하지 않았다. 간혹 대도시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오고,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나누며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다.

또 인근의 몽족 마을에도 FEBC의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나타났다.

그러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도 이들 몽족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며 점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중에는 심한 구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심한 고통을 겪은 성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왔다.

몽족 교회가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이었던 콰의 마을은 당시 몽족 사회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독교 교단에 가입했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수십년을 거치며 이 지역 몽족들 안에 100여 개의 교회와 1만 명 이상의 성도로 늘어나 믿음의 삶을 누리고 있다.

한편, 몽족 성도들은 노후된 교회 시설 개보수와 늘어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광야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단·달리야 장로 부부

한국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지난 10월말 입국한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 대한 호칭) 단 알론 장로와 달리야 알론 사모 부부. 그들은 지난달 말 종교개혁기념일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열린 금식기도성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한국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11월중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현재 이스라엘 남부 미츠페라몬에서 기도의 집을 운영 중인 이들을 한국 체류 기간 중 만나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들었다. 통역은 최요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인터뷰는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 어떻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셨나요?

“지난 몇 년간 한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보내는 아웃리치팀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우리 기도센터를 지속해서 방문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훈련해 보내는 선교단체의 훈련과정과 내용이 궁금했어요. 한국에 올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땅을 고칠 것’이라는 역대하 7장 14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그 단체를 방문해보셨나요?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방문해 그들의 헌신과 태도, 열정을 보게 됐어요. 복음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 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밖에도 여러 단체와 교회를 방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해 기도하는 성도들 보며 한국에 관심

-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신 것 같네요.

“한국 사람 특유의 열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해요. 또 한 선교공동체에서 선교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에 이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죠.”

- 두 분의 삶을 소개해 주세요.

“아내는 종교적 배경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불신자였어요. 결혼한 이후, 막연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요가도 해보고, 단전호흡 등 뉴에이지 같은 것도 해봤죠. 재미는 있었지만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다 91년에 직장에서 안식년을 맞아 휴가차 미국으로 갔어요. 그때까지 신약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쥬를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 미국에서 그런 분을 만나셨나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놀라운 만남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곳에 거의 한 주간을 머물다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저희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당시 저희는 미국 몇 개 도시를 방문중이었는데 한 국립공원에 갔을 때였어요. 폭포 앞에서 아내와 같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한 자매님을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사용하자 그분도 유대인이라며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참 친절해서 계속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 그 첫 만남에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봐요.

“그 자매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정도의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져 우리 큰 아이 성인식에 초대했어요. 며칠 머물던 중 성인식을 마친 그날 밤에 자매님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어요. 이사야 53장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진리임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미국에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 두 분 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한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주님이 저의 인생에서 주인은 아니셨어요. 이에 엔지니어였던 직업을 정리하고 96년부터 교회를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2004년에 광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간 이후 저희 부부관계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 어떤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죠. 사실 광야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자로서 책임감, 자존심, 자기 의, 나의 권리, 그런 여러가지 영역에서 아내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이 저희를 다듬어가셨어요.”

- 그러면 그동안 가정경제나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장을 그만둘 때 저희들이 쓸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주셨어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주님이 허락한 축복이었죠. 그리고 4년 전 지금의 남부에 있는 광야로 거처를 옮겨 열방기도센터를 시작하면서 한국 성도들과 관계를 갖게 됐어요.”

- 어떤 만남이셨나요?

“한국인 최요나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안내로 한국의 아웃리치팀이 이곳을 방문해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분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 10월 31일에 열린 2016 금식기도성회에 참여해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듬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주님이 연결시켜주신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 지금은 어떤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 하나님은 우리(유대인)를 위한 신이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신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러나 교회를 찾게 되고,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은 다양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갖는 관심과 열심이 좀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 관심과 궁금함이 생겼어요.”

-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난 몇 년간 한국 분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조금 듣게 됐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명을 지키고 유대주의적 사상이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토라(구약의 율법서)나 유대의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이지요.

저희는 광야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알게 됐어요. 바울도 이방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남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합니다. 이미 이천 년 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난 내용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예요. 메시아닉 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신앙노선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 메시아닉 쥬들도 다른 관점이 있나요?

“그렇죠. 조금씩 다른 관점이 있어요. 어떻든 저희는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적 사탄은 매우 영특하니까요. 성도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대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해서 유대지역에 나라를 세운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누구인가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이들은 각각 기원전 722년과 586년에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성경에 이들을 하나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입국이 허용은 되지만 복음은 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운동이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5)

예수 안에서 내가 꼭 보고 싶은 것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던 세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에 달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 그는 그렇게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도 사역의 열매를 보고 죽은 사람은 없었다. 이사야, 그도 열매 하나 못 본 채 그토록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 눈이 상할 만큼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비통한 가운데 완고한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포로지에서 죽었다.

하지만 죽음도 그들의 열망을 빼앗을 수 없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랐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이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경건의 열망이었고, 거룩의 열망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고, 이스라엘의 열망이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고, 삶이 뒤집어진 사람들은 그냥 못 산다. 그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무친다. 영원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 전에는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죄의 삶이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유혹해도, 비록 괴로울지라도 씨름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닮고 싶어진다.

망한 술집 아들이었던 나,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렸던 나, 가장 찌꺼기 같았던 나를 사랑하다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내 영이 알아듣고 믿어지게 하신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내가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어머니 태 같은 조국의 교회가 이 영광의 진리를 만나는 것, 비참하고 헛갈리는 영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 민족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몰랐어도 '유무상통'(有無相通)하며 살았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4~45) 그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었다. 감격이 있었다. 값비싼 악기 하나, 강단 하나 없었고, 숨어서 드렸던 예배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충만했다.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받는 모욕을 기뻐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 5:41) 그들은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대었고,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축복했다. 그들은 마치 천국에서 금방 뛰어 내려온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다.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은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 그랬던 그들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사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는, 꿈꾸는 것 같았던 경건의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다.(2016.2 메시지 정리) 〈계속〉[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prayermedia

"미스바로 모이라" 오디오CD 발매

부제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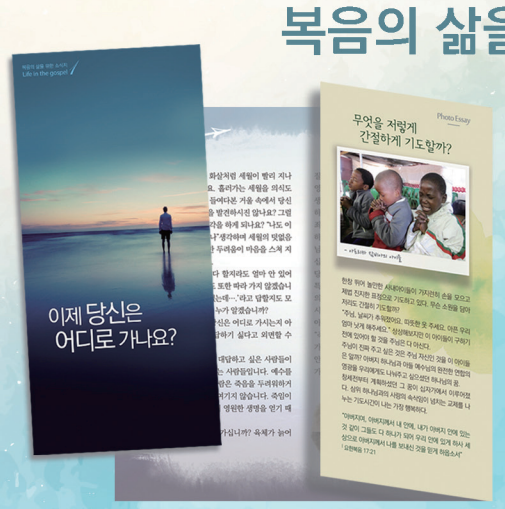
부흥이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그 분만 구하는 것!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정욕에 눈이 멀어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짓밟히고 있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고자 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날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자.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5,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5면에 이어〉

Interview

이스라엘 광야 한복판에서 작은 기도의 집 시작

- 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하게 있어요. 유대인 성도를 메시아닉 쥬라고 부르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메시아닉이란 말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닉 쥬란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이런 용어가 정착된 데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민족이라는 이유로:편집자) 서구사회에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해의 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혐오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거리에 십자 교차로 대신 로터리가 있을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믿음의 증인을 본 게 참 기뻐요.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운영하는 열방기도센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단 장로와 달리야 알론 부부는 이사야 35장 1~4절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의 말씀을 의뢰하고 2015년 3월 이스라엘 남부 광야 한복판에 작은 '기도의 집'을 시작했다. 이곳에는 현재 이스라엘과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한국 등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꿈꾸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GNPNEWS]

C.K.

▶ 기도아웃리치팀과 함께

믿음의 삶

“주님은 나를 평생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음에도 죄에 반복적으로 엎어지는 날들이 있었다. 결국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마저 품게 될 정도였다. 죄는 짓고 싶은데, 하나님 살 아계심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나는 다시 절망이었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완전한 절망 끝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달려와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 되게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한때 나는 크게 성공한 목사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 내게 주님만을 따라오라시며 선교훈련으로 불러주셨다. 훈련을 받는 동안 지체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두려움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압도되었다. 주님은 출애굽기 3장 9~10절 말씀을 주시며 평생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확증해 주셨다. 그러나 난 지체들과 함께 할 때만 용맹한 사자였지 홀로 찾아간 지하철에선 그저 통나무였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선포하라는 계속된 주님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채,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다 내 소개를 하게 되었다. 딱히 소개할 말이 없어 한국에 돌아가면 전도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 갑자기 노(老)선교사님이 “형제, 나랑 같이 하지.”라고 말씀하셨다. 선교사님은 한국에 귀국할 계획이셨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 이뤄졌다.

압도하는 기쁨, 복음 선포 현장

어느 날 선교사님이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을 부르신 후, “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나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지하철 관계자의 경고를 받고 그날 전도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교회 지체들과 다시 지하철역으로 갔다. 이번엔 함께 한 지체들과 연합해 함께 외치기로 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면, 연이어 뒷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쳤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며 외쳤던 것처럼 지하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하며 선포했다. 일명 ‘요나 선포’였다.

이후, 믿음의 발걸음을 권유하는 한 단체의 소개로 기독교대안학교를 알게 되었다. 만약 그곳에 가게 된다면 교사로 섬겨야하기에 내가 가르칠만한 과목이 없을 것 같아 포기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던 중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게 하셨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님을 섬기며 너무 행복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다시 일으켜준 전도 수업

하지만 이곳에 온지 1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와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 그저 버티고만 있을 뿐이었다. 다만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들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전도’라는 수업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주셨다. 이전에 전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나에게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다. “마음에 죄 없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자니 주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죄가 있다고 말하자니 이 사람에게 말려드는 것만 같아서 대답하기가 순간 어려웠다. 나는 지극히 죄인이었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과 십자가가 결론되었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과 대화를 어렵게 끝낸 후, 평소에 복음을 선포하기 어려워하던 한 학생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도 학생은 자신이 선포를 잘 못한 것 같다며 연민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도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탄은 ‘나’라는 존재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했다면,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것이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택하신 양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영원히 목자 되신 주님만 주목할 것이다. [GNPNEWS]

송재민 교육선교사

부흥을 위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한 일꾼의 이야기

북한에 얼마 동안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한 일꾼이 상기된 얼굴로 모임 장소에 들어섰다. 그리고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말문을 열었다. “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기막힌 일이 있었시요.” 본부의 일꾼은 놀란 얼굴로 “왜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일꾼은 팔을 내저으며 “아니, 그런 것이 아니야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라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팔을 가만히 끌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내래 이번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네다.”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일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뭐라구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세요.”라고 채근하자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내래 만난 북조선의 성도들은 미리 연결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네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북한의 깊숙한 OO지역에 갈 일이 생겼시요. 그곳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당의 간부로 일하는 사람으로, 적어도 일반인은 아니었습네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감시하며 따라붙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제게 낮은 소리로 ‘저는 이곳에서 제한된 서적도 접할 수 있시요.’라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습네까? 이 말에 놀란 제가 그를 쳐다보며 ‘뭐라구요? 무슨 종류의 책인데요? 그럼 종교

서적도 봅네까?’라고 재빠르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기르믄요. 성경도 봅네다.’라고 말했습네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네다.

믿는 자를 알아본 한 성도

잠시 그러고 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고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네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뛉네다. 그 사람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았나 봅네다. 제가 그동안 저와 연결되었던 성도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네다.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네다. 그들은 기막히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시요. 그리고 그곳에도 성경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네까?”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나의 소망

그의 삶은 항상 설교현장

40년 이상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목회해온 아타나시우스. 정통 삼위일체론을 지켜온 그는 이단자들의 모함으로 24년간 여섯 차례나 추방을 당해야 했다.

326년 2월 8일. 그가 시무하던 교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에워쌌다.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온 군인들은 회중과 성직자들을 예배당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를 모함하던 반삼위일체론자들은 아타나시우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반역을 도모한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온 나지안주스의 그리고리는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설교할 때 온유하고 친절했으며 열정적이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게 오히려 항상 부드러웠다. 그의 삶은 항상 설교 현장이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세 왕 이야기〉

어려움은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할 몫

진 에드워드 | 허령 역
예수전도단 | 150쪽 | 2001

이 책은 이스라엘의 세 왕이었던 사울,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룬다. 자기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윗을 인식한 순간부터 10년 동안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한 미친 왕 사울,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려 반역을 도모한 압살롬, 그들로 인해 진정한 깨어짐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배운 다윗의 이야기이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이 교장이신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눈물, 고통,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찬송한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 한 미친 왕 사울을 선택하셨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일을 행했던 왕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자였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다 점점 미쳐갔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미치광이 사울 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 배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조용히 떠났다.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잔인한 상황을 포용하고 대항하지 않았다. 잠잠히 혼자서 가혹한 시련을 견뎠다. 이를 통해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다. 그는 눈물, 고통,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찬송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시 142:1~2)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 왕과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일어난 아들 압살롬에게 손가락 하나 들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사울처럼 될 수 있었지만 사울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의 뜻을 구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때 고통을 분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겸손이 태어나고 있었다. 주님은 그때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셨다. 다윗은 권위가 아니라 순복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배워갔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원하신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나라는 인간의 상한 심령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형식도 계급도 없다.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왕위에서 물러난다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권위가 아니라 순복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깨어짐의 학교를 통해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사욕들을 제거하시고 왕국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넘겨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셨다. "왕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셨다.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부하 중의 한 명이었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동굴에 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왕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다윗은 내게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어.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네. 다윗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가르쳤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어려움은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 그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지. 그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네. 그는 반역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그저 잘 우는 지도자를 가진 600명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네."

[GNPNEWS]

박희영 선교사

뮤지컬 더 북(The Book) 2017년 1년간 상설공연!

사단법인 '주님의 작품 문화행동 아트리(이하 아트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2017년 1년간 뮤지컬 '더 북(The Book)'을 상설 공연한다.

뮤지컬 '더 북(The Book)'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아트리의 111(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창작 공연되었던 작품이다.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120%를 기록하며 크리스천 뮤지컬 가운데 '레미제라블' 급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아트리는 1년이라는 장기 공연을 위해 배역과 넘버(노래)를 늘리고 영상을 도입하는 등 작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오디션을 통해 1년 단기예술선교사(배우)들을 뽑아 세웠다.

'더 북(The Book)'이란 성경을 가리키는데, 뮤지컬 '더북'은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롤라드'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롤라드란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로서, 번역된 성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던 가톨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전하기 위해 성경 한 권씩을 외워 광장에서 외쳤던 글자 그대로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다. 두 시간의 공연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경을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 사이의 대결이 밀도 있게 전개된다.

아트리는 대학로 장기공연을 위해 극장 한 달 대관료를 내주고 그만큼의 공연 티켓을 받는 '12 파트너'를 찾고 있다. 현재까지 같은 문화선교 단체인 팻머스를 비롯해 광염교회, 푸른나무교회 등 다섯 '파트너'가 결정된 상태이다.

12 파트너 외에도 아트리는 작품 제작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10만원을 헌금하는 300롤라드를 모집 중이며 뒤로 가면서 관객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차등 관극료를 책정했다. 1월에 1만 원으로 출발, 매월 2000원씩 인상돼 12월에는 3만2000원이 된다. 물론 5만 원을 호가하는 대학로 뮤지컬들에 비해 3만2000원도 결코 비싼 것은 아니다.

아트리는 2017년 1년간 공연 외에도 매일 밤 공연 후 대학로 연극인들을 위한 30분간의 기도모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주일 오후 6시에는 '그 나무 아래(Under The Tree)'라는 53회의 특별복음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1월 1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되며 12월 31일 마지막 집회를 끝으로 공연이 마쳐지는 셈이다. 기도회와 특별집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연과 집회는 모두 대학로 '열린극장(혜화역 4번 출구)'에서 열린다. 공연예매는 아트리 홈페이지(www.gospelartree.com)에서 직접 할 수 있고, 12파트너와 300롤라드에 관해서는 아트리에 문의(☎ 010-2648-8255)하면 된다. 첫 공연은 2017년 1월 2일 월요일 밤 8시에 시작된다.

한편, 아트리는 11년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40여 명이 공동체를 이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GNPNEWS]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11. 10 ~ 11. 2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명혜 김사회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신동구 안병윤 윤경석 이경희 장근혜 장영선 조상국 조철현 차인순 최정숙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글로벌드림 동명교회 시흥교회 부천좋은감리교회 서울복된교회 순회선교단 성경언어훈련학교 은혜신일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만교회 팔복감리교회 처음사랑교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